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f Social Welfare
신문윤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8-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권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하나센터
복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권단로 87, 302호

제 211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6년 11월 29일 <수요일>

"행복한 복지충북 · 나눔의 이웃사랑 우리가 만들게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성료

충북도민 복지 현신 유공자 55명 포상 수여

사회복지 이해증진·종사자 격려 행사 펼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와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병준)가 공동 주관 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가 10월 18일 보은군 벚꽃공원에서 개최됐다.

충청북도의 보은군이 후원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김양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총 사 자, 지역주민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이 올랐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충북회장 박병준)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사업관리선언낭독, 충북사회복지전의표대회 등 다채로운 사회복지 주관기관 12개소의 출보 퍼 행사스가 수여됐다. 충청북도지사 표창, 보은군수 표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등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보은군 유공자 55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사회복지 유공기관 12개 부스에서는 캘레빈, 정보제공, 음식 및 공예제품 등이 상시 운영 돼, 풍성한 장이 펼쳐졌다.

이 날 기념행사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여 복지발전을 위한 다짐과 도약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9월 7일로 지정돼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유공자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5인) : 곽영림(복천사사회복지법인이사장), 백영숙(엔소아동복지관장), 윤용현(보은군지방사회복지 주사, 이해리(증평군지방사회복지 주사), 김현정(보은군 지방사회복지 주사), 김현희(보은군 지방보건팀 서기), 안재숙(괴산군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유근규(단양군 지방사회복지 서기)

충청북도의회의장 표창(2인) : 고은희(충북복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김재환(진천군노인복지관 관리주임), 김성희(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팀장), 김순예(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김준형(진천노인전문요양원 작업치료사, 민동식(영동군사회사비스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임태석(증산동노인복지요양원 간호조무사, 오은영(청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금선(삼보사회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임재하(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 주임), 진해영(의원지역자활센터 팀장), 정선경(해부종합사회복지관 대리)

보은군수 표창(6인) : 고임정(보은군보건소 치매상담사), 박진우(보은의료원 행정팀장), 이세인(보은의료원 요양보호사), 장미경(보은군장애인연합회 간사), 주인옥(인우원 사회복지사), 한은경(K-welfar 대형댄효나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13인) : 김미래(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지(충주시노인복지지관 사회복지사), 박영미(음성군대가노인복지센 사회복지사), 박미라(영동군사회사비스센터 장애인활동보조인), 윤미숙(단양노인요양원복지관 선임사회복지사), 윤현애(괴산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은희(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은희(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슬기(제천시학교복지중소년지원센터 팀장), 정다혜(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팀장), 정선경(해부종합사회복지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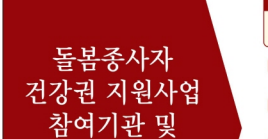
보은군수 표창(6인) : 고임정(보은군보건소 치매상담사), 박진우(보은의료원 행정팀장), 이세인(보은의료원 요양보호사), 장미경(보은군장애인연합회 간사), 주인옥(인우원 사회복지사), 한은경(K-welfar 대형댄효나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2인) : 김은영(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박미기(충주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박종림(충북복지웰빙요셉의집 생활재활교사, 서정아(소촌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신미나(괴산지역자활센터 팀장)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가 10월 18일 보은군 벚꽃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00세건강 요음전도사 '우리가 간다' | 9988 행복나누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수월사례발표경로당 프로그램 등 시연



10월 29일 보은 속리산우리은에서 열린 9988행복나누미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북도가 노인복지 여표으로 추진하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10월 25일부터 이틀간 보은군 속리산우수리은에서 열렸다.

올해 새로개 개최하는 9988 행복나누미 워크숍은 100세 시대, 행복리더 충북! 을 슬로건으로 행복나누미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자 상호간 화합과 소통, 정보교류를 통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공동) 주관으로 더뜬된 이번 행사에는 행복나누미의 경로당관리자 등 260명이 참여해 수월사례발표, 경로당프로그램 강사양성 교육, 특강, 경로당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경로당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행사 첫날, 시군별 행복나누미사업 수범사례 발표에 이어 경로당프로그램강사위 자세의 역할 교육, 대한노인회 여성 회장의 100세시대 행복리더 대한노인회 만 주제로 특강을, 그리고 행복나누미사업 12개 수행기관간 정보교류를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시연이 이어졌되었다.

이틀날, 보은군청치건강증진센터장의 노인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충북광역치매센터의 치매의 이해와 예방관리,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프로그램강사 양성교육 등 다양한 강의도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한 행복나누미는 경로당 이벤시팀이 프로그램을 즐거워하시고, 건강체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 보람도 느낀다 며 회고를 참가 소감을 말했다.

충청북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경로당에 웃음이 피어나고, 어르신들이 삶의 의욕과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은 행복나누미의 뜨거워 좋은 땀방울이 일궈낸 결과로, 앞으로도 100세 시대 행복리더의 역할을 선봉장이 되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양성평등, 용기 갖고 더 노력을"

충북도, 양성평등 토론의 장 마련 여전한 성차별 등 개선노력 당부

충북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10월 28일 양성평등 특강을 개최하였다.

양성평등 인식 확산 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서원대생과 여성단체 원혜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구분없이 특강이 분위한고 대주임도록 여성과 남성 간 성 차이 인식과 존중, 배려에 관한여 이야기 하고, 성매매근절, 호주제폐지, 보육시설 확대, 직장 내 여성의 승진기회 확대, 남녀 고용 평등, 문만휴직제 등 사회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은 20세대의 대표적인 대학생들과 50 60세대인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이시대 양성평등에 대해여 함께 고민하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심들하기 양성 평등을 현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 받고 있는지 깊이깊이 집단한번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환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남인순 국회의원 초빙 특강은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 옌트초청 2016년 충북여성 리더스 포럼(양성이 있음이며, 9월 29일 청주 대 이정환 강좌 초빙 특강을 시작으로 회윤 변리사, 명랑규 휴 행안부장관, 전윤희 인보 캐스트를 휴먼엔저연구소 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김월일 화가, 나눔원 국제의원, 민병주 의원 대한여성회기술인회 회장, 민무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까지 다양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모집

'돌봄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 사업이란?

충북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리더양성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돌봄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1. 대 상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사업기간
- 2016. 8. 1 ~ 2017. 7. 31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여,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4. 내 용

프로그램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정원	17명	8명	30명	10명

| 신청 및 문의_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임미정 사회복지사** T. 043)234-0840

민관협력 지역 복지자원활성화

제천시희망나눔센센터 사회복지 정체성 확립 세미나
지역 긴급지원 · 사각지대의 대응 등 6개 주제로 토론
이근규 시장, 자원발굴 · 나눔실천 복지모델 개발 강조

제천시희망나눔센센터(센터장 심재석)는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광태)와 공동주관으로 변화는 복지정책을 확인하고 지역의 숨은 복지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1월 8일 세경대학교 학술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 일반시민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과 활성화, 나눔과 실천의 복지모델 개발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 등 강조하며 소외된 이웃이 없이 지원하여야 수있고, 권리에 대해 각 개인들이 이해가 깊을게 뿐음되며, 복지 제증에게 관중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는 지역사회 복지제재를 잘지 나가기 위해 마속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충주시 호암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가 조손가정을 찾아 도배를 하고 있다.

보은군 농촌지역 교통안전 교육 아광자원이 등 안전용품 전달도

보은군은 11월 2일 산외면 봄계2리이장 구항회)에서 농촌진흥, 도로교통부와 함께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지원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봄계2리 마을회관에서 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와 차량, 전동킥보이 등 40여대에 안전반사판과 초고휘도 반사테이프 부착했다.

또 농기계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노령층에게는 밤길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광지팡이를 전달하고 입증 전이나 야간 외출시는 낮은 색상의 옷을 입고 야광지팡이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범죄예방범인검거 기여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월 3일 진천군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께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후문 주변가 에서 김모 음의 17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앞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라명과 경찰 1명은 삼수초 후문에서 주택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 수보건 집중 모니터링하면 중 짐꾼 음의자가 주택의 담을 넘어 바상벌을 음범다. 때라 전 카메 센터서에 경상보보를 없탐하면 강력계 출시됐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20여 분 후 담을 다시 넘어 도주하는 음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올들어 10월 말까지 지난해 65건보다 3000여 건 증가한 950건의 각종 범죄 및 사고 영상자료를 경찰에 제공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한몫을 했다.

진천군은 2011년, 전국 최초로 구담인 CCTV, 지능형 관제 센터스 를 도입해 지방정보보안 수준 사례 발표회 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통합관제센터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충북도 취약계층 5648가구 연탄쿠폰 배부

약 13억4 상 23만5천원씩 2017년 1월말까지 추가 접수

충청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5,648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3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올해는 총 5,648가구가 약 13억 원 상당의 겨울철 연탄쿠폰 지원해 배부, 이는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이며, 가구당 지난해 160장씩 보다 주 가한 235장씩 원장이 지원된다.

가구당 23만 5천원은 연탄소매 가격 580원 기준으로 405장 구입이 가능한 금액이다. 연탄쿠폰은 시 · 군, 읍 · 면 · 동을 통해 연탄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되며, 연탄쿠폰 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게만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권재정희과 이두표 과장은 연탄쿠폰은 직접받게 되는 가구이외에도, 취약계층 가구가 17년 1월일 이전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에스지에이 홈페이지 해당가구는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고 말했다.

옥천군 의료급여사업 '우수'

충북도 유일 의료기관 이용안내 및 맞춤형 서비스 호평

옥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결과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에 군은 11월 17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는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는다.

11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우수는 1개 기관, 우수는 대 도 시 중 소도시 농어촌 초지연합 각 5개의 기관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옥천군은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경남 고성군 및 창녕군과 함께 농어촌 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4년에 이어 의료급여사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만성질환자들의 약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의료기관 이용안내 등 개인별 맞춤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사용하는 가구이며, 가구당 지난해 160장씩 보다 주가한 235장씩 원장이 지원된다.

가구당 23만 5천원은 연탄소매 가격 580원 기준으로 405장 구입이 가능한 금액이다. 연탄쿠폰은 시 · 군, 읍 · 면 · 동을 통해 연탄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되며, 연탄쿠폰 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게만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권재정희과 이두표 과장은 연탄쿠폰은 직접받게 되는 가구이외에도, 취약계층 가구가 17년 1월일 이전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에스지에이 홈페이지 해당가구는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고 말했다.

충북 도민대상에 지역사회 박중걸 등 3명 선정

충북도가 시행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16회 충북도 도민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충북도는 22일 부군별 천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종섭 충북사회복지시민 주최)를 개최하고 17명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벌여 3개 부문 3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결과 종해왕한에 기여한 무궁한 공적이 있음의 상임경제 부문 수상자는 선정됐 않다.

2016 충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는 지역 사회 부문 박중걸 바르게살기운동 충북협의회장 본 회 북부분 홍승진 봉주시 생명의 양공자 부문 수상자 선정됐다.

선행봉사부문 정희면 제천시자원 봉사센터장이 선정됐다.

지역사회부문 수상자 박중걸 바르게살기운동 충북협의회장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선행봉사부문 수상자 정희면 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제천시 자원봉사 기반 및 인프라 확충, 자원봉사자 등록률 확대, 자원봉사 체험홍보단 창립, 자원봉사자 지원 마련 등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16회 충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은 12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자, 심사위원, 가족 친지,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왼쪽부터 지역사회 박중걸, 문화체육 홍승진, 선행봉사 정희면

나눔으로 이웃에 희망 전하고 행복 충전

충주호암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랑봉사 조손가정에 집수리 · 긴급지원비 등 지급 '훈훈'

충주시 호암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충주시사회지공자동보금둘이 공모한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되 후 해당사업을 차집 없이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호암직동 협의체는 병마로 싸우고 있는 모전과 어렵게 사는 관내 고교재학 청소년에게 12월까지 매달 화원비 1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다.10월 8일에는 보장협의체와 협력체결한 지역봉사단체 자은사평생사회화장 박영동의 명예 조손가정의 자립 대월소와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봉사를 추진했다.

또 지난 추석 명절에는 모전 제사비용, 조모 병원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 학생에게 긴급지원비를 지급했다.

하상대 위원장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지원비로 관내 이웃은 이웃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비록 가장에게도 집수리 작업에 참여해 손 봉원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청주시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연료보조비생계비등복지지원

청주시가 저소득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동참기 집중지원, 연료보조비 지원, 연탄나눔기 사업, 미등록쪽방촌 유류보내기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동절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이 사망, 가출이나 질환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정액 표비를 포함해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사는 사업이다.

청주시는의 차별화된 복지드웬드 360 만드의 동절기복지프로 을 통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동절기에 한해 연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로 1가구당 1만원을 바우처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앙연탄은행, (사)청검리, 기흥 단체 등에서 저소득층 거울나기에 동참하기 위해 연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원지역, 대우아파 중앙동, 계약하수스, 경호슬물재, 서산사로, 롯데아파 불광동, 대리아파트 내수정, 기흥 주공아파트, 한국동부아파트, 한국동부아파트 아동, 로즈마스 아스트로스 청주동보호, 한양명호 보인, 청수지역주공4단지, (주)월드인삼(삼에이)지과, 지방 에한양명동호회보인, 한빈, 감가재 생고기개동, 화피 비개도 중주학교, 주주월, 서울주유지스, 시이스유통, 주주주주 보명화, 국방회교, 금관합기회, 동양정, 청주학전(주), 무궁화무궁화 청원기초주식회사 (주)우리농, 신라공업(주), 대리아파트 명정, 한솔 학전(주), 지방제지(주), 대우아파트 아동, 로즈마스 아스트로스 청주동보호, 한양명호 보인, 청수지역주공4단지, (주)월드인삼(삼에이)지과, 지방 에한양명동호회보인, 한빈, 감가재 생고기개동, 화피 비개도 중주학교, 주주월, 서울주유지스, 시이스유통, 주주주주 보명화, 국방회교, 금관합기회, 동양정, 청주학전(주), 무궁화무궁화

청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난방에너지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급자 등 71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청주지역 내 589가구에는 기존 일반바우처 2,280천원외 총 1억 3800여여원이 지급된다. 또 112가구에는 1가구당 난방유 바우처 31만원씩 총 3500여여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중앙연탄은행, (사)청검리, 기흥 단체 등에서 저소득층 거울나기에 동참하기 위해 연탄지원

충북도 의료급여사업 '우수'

충북도 유일 의료기관 이용안내 및 맞춤형 서비스 호평

옥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결과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에 군은 11월 17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는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는다.

11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우수는 1개 기관, 우수는 대 도 시 중 소도시 농어촌 초지연합 각 5개의 기관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옥천군은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경남 고성군 및 창녕군과 함께 농어촌 지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14년에 이어 의료급여사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만성질환자들의 약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의료기관 이용안내 등 개인별 맞춤

만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앞장

충북도 3년만에 5900명 취업 알선 올해 목표 93.1% 달성

충청북도가 만6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사업을 본격 최초 시행한 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호지 노력을 하고 있다.

2014 ~ 2017년 민간일자리 창출 목표 8,000명 대비 2016년 10월말 현재 까지 5,900명을 취업을 성공 시켰으며, 금년도에는 757개 민간사업장에 1,661명이 취업하여 민간일자리 창출목표로인 2,000명의 93.1%를 달성하는 등 사업시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와 지역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교원이 기능한해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권재정희과 이두표 과장은 연탄쿠폰은 직접받게 되는 가구이외에도, 취약계층 가구가 17년 1월일 이전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에스지에이 홈페이지 해당가구는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고 말했다.

행 서비스를 지지 대 간호사들과 협업으로 체공한 검에서 실온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마다 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검사, 처치, 재활 보장기구 지원 등 지지서비 소외계층 건강관리에 노력한 부분도 칭찬을 받았다.

곤 권재자는 우수기관 선정에 우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향상과 수급권자의 자기 관리능력 함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해 나가는 의존하지 않도록 가족, 친구,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부탁했다.

10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운행입니다 -

홈페이지주소명

(주)에스엔푸드, 디오션 진천리조트, GS리테일 밸런스푸드, 롯데월드 경영센터, (사)나눔 계룡리스, CJ수원한 통센터, 대상 원주지점, 대상 원진지점센터, 홈쇼핑씨푸 지공동모금회, 홈쇼핑농협, 홈쇼핑농협, 나눔축산공동 본부, 중앙센터, 한우협회, (주)레시안, (주)대승주스

정주중앙기초주식회사

동양오리온동양오리온, 롯데제과(주)충북공장, 쉬놀보, 설악수어장, 풀은이슬, (주)케이씨푸드, 엠포보 리빙, 상쾌주유사지주식회사, 풀은이슬, 피자 정주제점

정주시니어스 주식회사

참조은주방, 풀은이(본점), 맥실유통 , 홈플러스(스마트폴리스, 풀은이점)(가경점), 피자마켓(가경점), 파리바게트(계양점), 바는이주, 풀은이점(계양점), 두레주방 (비이재홈점), 다인도시(고이점), 풀은이점, 청원주방 (지웰시티점), 이조곳에(지리), 금은이주, 청원주오무기, 조비스베이커리, 풀은이점, 풀은이점(성안점), 풀은 이점(성화점), 파리바게트(기경대학), 정드다스, 바로구 운, 지오영농조합법인, 청원영농, 청원시장, 식품기업, 풀은이점, 청고재농장, 정수주유소, 오두가내리점

청주도움주민센터

파리바게트(대명점, 문평주상점, 금천주점점, 산남점, 능동점), 시조점, 청원요양원, 청원한의원, 간호, 정원 , 풀은이점(성화점, 풀은이점, 가경점, 수양점 청원여인, 풀은이점 보고점, 서문주점, 풀은서문주점, (주)지과 동원, (주)인정, 김재홍에이치이

청주제일주민센터

청주제일고등학교, 한기정제지대표, (주)한씨식품, 무궁화주 물탱탕

청주세광주민센터

풀은이점(오창점), 파리바게트(오창점), 무궁화주민센터, 무궁화주민센터(지지점), 기쁨홀인쇼, 그린하우스주식회, 오창홈리트, 지갑지 인쇄점, 풀은이점(성안점), 풀은 이점(성화점), 그린하우스주식회, 기쁨홀인쇼, 지갑지 인쇄점, 풀은이점(성안점), 풀은이점(성화점), 그린하우스주식회, 오창홈리트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귀중한 시간

창립 20주년 기념 개최
사회복지사 노고치하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의회(회장 만홍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1일 더빈칸벤션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만홍태)는 사회복지가족사보, 윤지연충북도의원,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특무대표, 회선홍보위원장 등을 초청 신규 포상으로 기획한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 제1호는 표갑수 원장이래봐저개발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안종태 회장(충사협)은 창립 20주년을 도 다른 도와의 기절로 상아복지소비자들에 대한 예절과 특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특무대표, 회선홍보위원장 등을 초청 신규 포상으로 기획한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 제1호는 표갑수 원장이래봐저개발원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안종태 회장(충사협)은 "우리 사회에 행복을 전해주는 소중한 존재 이웃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송사협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 미련한 자리에서 협회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형성,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응집력을 확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발굴 · 포상

최우수상에 박금심씨 선정
문화예술분야 우수사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는 11월 11일 2016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는 이하 협의회는 11월 11일 2016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부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헌신코자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9월부터 27건 충북 곳에에 걸쳐 13건의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심의를 거쳐 회우수상 박금심(문화예술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연극), 우수상 성용종(교육연구 분야, 성공적 은퇴에 대한 P/G 개발), 전반년고육연구분야, 노인양여교실 운영), 장려상 김용선(심장년벤포밴분야, 노인 동년배상담, 비분운어(시설서비스분야, 노인 요가교실 운영), 입만구상단련포등분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등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이와 심의보 회장은, 우수사례 발굴 장이아 팔포 사회공헌의 현신한는 지와 이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기관들의 상생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 및 입지어 활성화에 적극 힘조겠다. 고 전했다.

37회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우수부서에표 창 시각장애인 화합 행사 등 운영

3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1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충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행사, 2부 복지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청주맹학교 학생의 화평의 쇼팬연습곡 대양 피아노 연주 축하공연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박상덕 회장연합회장에게 흰지팡이를 전달하고, 유공자 및 우수부서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2부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윷놀이, 팔씨름, 퀴즈대회 등 복지대회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격려사에서 청주맹학교에서 초 중 고 과정을 마친 뒤 일본 동경대에서 장애인 유학생 중 세계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경대 베리어프리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영미 박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흰 바지는 나쁜 길은 빨리 알아버리고, 좋은 길은 오래 기억하는 바퀴이 있다고 한다 며 시각장애인들이 밝 금정치인 생각을 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3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3일 충북종합사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꿈나무들의 끼 한마당 맘껏 펼쳤다

충북꿈나무 예술제 개최
시설아동들 연극 등 공연

10월 15일,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식)는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제10회 충북꿈나무예술제 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술제에는 도내 아동복지시설아동 및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아동장학금 전달식과 시설아동들이 벤드, 댄스, 힙합, 연극, 포크댄서, 금관 및 현악 연주 등 그동안 갈고 닦은 끼를 맘껏 펼쳐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권현식 회장은 이번 꿈나무예술제를 통해 우리 아동들이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맘껏 펼쳐 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아동들이 밝게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충북꿈나무예술제는 도내 아동복지시설아동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아동 상호간의 협동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의 장으로 충북복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협회회원협회(이민성 회장)의 지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 기관실무자 워크숍

1366 충북센터, 19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 강화 논의

충북도여성발전센터(소장 진정애)는 10월 20일 과산 상무이영길에서 여성폭력방지 19개 유관기관 8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폭력방지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1366 충북센터를 비롯해서 도내 가정폭력 쉼폭력 상담소 및 아 동 청 소 년 노 인 전문보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회있선에서 상담 업무보 소진된 실무자들이 사기 진작 및 위한의 장이 되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은 이번 연수는 실무자이 여방강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는 도내 여성폭력방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돌봄종사자 건강지원 미술치료로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도보전 등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가 11월 26일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이날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충북지자장애인지팡이활센터(소장 이종일)에서 돌봄종사자 활동기관 3개소, (북대구리틀스노보)복지센터1노인요양원,충북지자장애인지팡이센터를 비롯한 지자 부설 직지돌봄센터, 한국장애인보도블 충북지회) 소속 종사자 9명의 참여로 진행 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 지는 음악은 시간이었다. 4회 하는 일정이 짧게 느껴지며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든다 라고 말했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돌봄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 실시되며, 미술치료를 시작으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의사소통교육과 소모임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을 11월 중 진행 할 예정이다.

심의보 회장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돌봄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취우개선 토론회, 정책연구 등 충북권 돌봄종사자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충북도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해 역량강화 및 권리향상에 기여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돌봄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 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한아름 대리 (T.043-234-0841)

"최순실 예산 깎아 복지예산 늘려야"

오세세의원 관련예산 10건 2714억원 달 해 전액 삭감해야

최순실과 관련된 내년도 국가예산이 2700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예산을 모두 삭감해 부족한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오재세 국회의원(광주 서원은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집중여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적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예산은 로리아 에어드 144억원 새 마을운동 ODA(외교부) 396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문체부) 1267억원 개발도상국 통학시설(보건복지부) 185억원 국 제 농업협력(농식품부) 193억원 등 10건에 2714억원이다.

이는 올해 같은 사업 총예산 1863억원보다 45.7%인 85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이 3.7% 늘어난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오 의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301억원이 민원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삭감됐다 며 기초연금 3조 300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0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빈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내년 장애인복지 지급 예산은 1조 941.3원으로도 올해 대비 1.2%이 2309억원 감액돼 원상회복해야 하다 며 강력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관련예산 50억원을 모두 삭감 시켜주 기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인보건는 올해 편성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301억원이 민원 미편성됐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58억원 삭감 등 총 396억원이 삭감됐다 며 기초연금 3조 300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201억원 등 노인 관련예산 증액이 빈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내년 장애인복지 지급 예산은 1조 941.3원으로도 올해 대비 1.2%이 2309억원 감액돼 원상회복해야 하다 며 강력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관련예산 50억원을 모두 삭감 시켜주 기 위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자기방임 노인' 10년새 3배 증가

노인학대 유형 중 유일하게 증 가 별도의 매뉴얼 만들어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종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실린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늘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사례 2005~2015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에서 점유비율이 2005년 1.0%에 불과했던 자기방임은 2007년 2.1%, 2009년 2.8%, 2011년 4.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 등으로 증가했다.

자기방임의 증가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관계 비중이 해마다 변화해 학대행위자가 노인 본인인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5년 14.7%로 껑충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와 특성이 다른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다 더 대응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노인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하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교수 복 지 부 관계자 등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위원장 차홍봉)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권동으로 11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 주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차홍봉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장이 맡았고, 주제발표는 사회복지법인 보아 회승현 이화여대 교수,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최균 한림대학교 교수, 사회복지인력 보아 김경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 사회복지 교육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준영 서울시 입대학교 교수, 류진석 충남대학교 교수, 장순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토론회가 11월 9일 한국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6면

신용불량자 정보 이용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 용 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박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면 해마다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50~60대 36% "나이 들어 병원 못 갈까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발표

50~60대 100명 가운데 36명은 나이가 더 들면 병원에 갈 수 없을 지 걱정되고 경제적 것이 걱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기 건강 수준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의 31.6%, 60대의 41.4%는 노인이 질환 때 병의 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50대 50명, 60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62.2%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이유(43.9%), 교통이 불편해서(12.5%), 병의원 들에 예약하기가 힘들어서(3.3%) 등의 순이었다.

노년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50대의 65.6%, 60대의 70.2%는 노인이 질환 때 의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진료해줬 음 좋다고 고 응답했다.

연구원이 200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 298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노년기에는 연령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 노인은 23.3% 가 2개의 만성질환, 13.4%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었고, 75세 이상 노인은 26.5%가 2개의 만성질환, 18%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했다. 75세 이상의 절반 가량은 뼈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여기서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암 및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뇌졸중질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등을 말한다. 노환과 질병 등이 연령으로 65~74세 노인 은 25%, 75세 노인은 10.2%가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박은자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판노인 기구가 늘어나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 노인은 23.3% 가 2개의 만성질환, 13.4%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었고, 75세 이상 노인은 26.5%가 2개의 만성질환, 18%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

외국인 근로자 귀국시 떼인 국민연금 2160억

반환일시금 제도 운영 잘모르거나 비자유형 복잡해 마수령 태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불편함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법법제정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의 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 월급의 4.5%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보험료로 내고, 국민연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질 병 사 항 등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0년 17만9741명에서 2014년 22만8685명, 지난해 26만1026명, 올해 9월 말 기준 27만263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연금 원금에 이자를 보태 받을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돌려 받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은 서울에서 5년 가까이 요사업계 종사한 중국인 근로자 장모(42세)가 그런 경우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금 보험료로 총 708만 원을 내 장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7 비자를 입국한 외국인 중 특히 요사업계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근로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권단체측은 우려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국민연금 공단에 보냈질개청구를 해 본인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4명가운데 2명, 금액은 216여 원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상대적으 론 적을 데 비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한정되어져보니 왜 외국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도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일까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짧을 수도 없는 돌을 감내해 낼뿐만 많은 외국인들이 반환일시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며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납부로 인한 혜택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그들이 는 상황인데 저소득 근로자들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돌려 주는 한다 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처벌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기반한 발생했어 이런 것으로, 지난 9월 없던 사회관계전문관리에서 는 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뿐가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지난 이어 해별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중 앙 시 도 시 군 구)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아동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결석 아동학대의 현황 및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방법 등 이다.

1월 이준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실린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유형 중 자기방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늘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사례 2005~2015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사례 중에서 점유비율이 2005년 1.0%에 불과했던 자기방임은 2007년 2.1%, 2009년 2.8%, 2011년 4.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 등으로 증가했다.

자기방임의 증가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관계 비중이 해마다 변화해 학대행위자가 노인 본인인 비율도 2005년 1.0%에서 2015년 14.7%로 껑충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유형의 노인학대와 특성이 다른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다 더 대응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노인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3자녀 · 맞벌이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보건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11월 8일부터 적용 시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당초 100점이던 입소 선 점수를 2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보육료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가점 30점을 부여하여 총 7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제도 추가 부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타파하고자 지난 5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 에 맞춰 시행되었으며,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제7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 개최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한다.

이번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입시부여운영지침 에 이어 에 점차하여 입학할 경우 입소 점수 및 순위에 반영된다.

나눔수록 행복해 집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1. 봉사단 모집대상
   - 100시꿈자원봉사단 : 재능을 가지고 있는 봉사단체나 동아리(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 베이비부머봉사단 : 955~19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월 2회 이상 활동 가능)
2. 봉사단 기준
   - 5인 이상(VMS 가입)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돌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눔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청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요지보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자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성 ·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패러다임 구축
5. 봉사단 혜택
   - 활동비(재료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 봉사단체 홍보
6.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주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황혼'

충북노인문화예술제… 지역 노인들 1천여명 참석
합창·기악 등 공연 펼쳐… 서예·문인화 전시도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의보)은 11월 19일 아트리움의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2016 충북노인문화예술제 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6회째 개최하는 충북노인문화예술제는 어렵다는 시니어 합창하는 새상 을 슬쩍건으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화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예술제는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의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김광동)가 공동 주관으로 도내 16개 노인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1,0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공연과 전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연은 4개 부문에 10개시군 26개팀 어르신들이 참가해 합창(팝송, 민요,대중), 기악(나팔), 노래(트롯)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한편, 예술의전당 보리에도 오랜 삶의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묻어나는 문예(고개, 서예(고개, 문인화(7개) 수상자들과 아울러운 일상을 그려낸 서양화 및 서진 작품 들을 전시하였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공연부문은 4개 부문으로 민요(청주시가곡보신복지관 은세계팀), 기악(충주시노인복지관 즐거운인생팀), 노래(충북군노인복지관 심퍼오브유팀), 합창(옥천군노인복지관 항수합창단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전시부문은 서양화나피아노인복지관 김정진님, 문인화(충북노인종합복지관 김활수님), 문예(충북시가곡보신복지관 은세계팀), 기악(충주시노인복지관 즐거운인생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한 요즘, 인생의 황혼기를 환금기로 보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뿌듯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장애인 가족 체육대회

미술작품 전시 표창장 수여도

사랑의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와 청주시지부가 주최하고 사랑의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제5회 충청북도 장애인 부모대회 및 장애인가족 체육대회 가 11월 5일 충청북도공무원체육관에서 장애인가족 및 내외빈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

국회의원 오제세, 변재일,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이승훈 청주시장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가족들의 체육대회가 진행 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복대대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전시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충청북도 장애인 부모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으로 하나가 되어 장애인가족의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것이다.

사랑의 온기 나누기 '한창'

음성기업체 한화첨단소재 재가장애인에 연탄 배달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재)에서는 11월 9일 지역사회 기업체인 한화첨단소재의 후원으로 재가장애인 가정에 온기나눔행사(연탄 및 난방유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화첨단소재는 지역 내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이, 병림 정 나눔, 온기나눔 등 꾸준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기나눔행사는 한화첨단소재에서 연료비를 후원하주어 연탄, 등유를 구매하였고, 6명의 직원이 나와 김재스께 짤랑해진 남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재가장애인 가정에 연탄을 배송하였다.

김일 봉사와 후원을 한 한화첨단소재의 직원께서는 날씨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을 보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직접 배송을 하여서 따뜻하게 보내드려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네요.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나눔이, 병림 정 나눔, 온기나눔 등 꾸준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화첨단소재에서 연료비를 후원하주어 연탄, 등유를 구매하였고, 6명의 직원이 나와 김재스께 짤랑해진 남씨 같아요. 라고 하셨다.

청남시니어클럽 급식돕기 나서 지역 8개초등학교에 25명 파견

청남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원은 지역의 초등학교는 대부분 구도가 작고 농촌지역으로 인해보후자녀 배식에 비중을 둔 환경으로 인해 교육회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남시니어클럽은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지역의 8개초등학교에 25명의 급식도우미를 파견하여 초등학교의 부족한 배식 인력지원 및 1 3세대 간 연계 기회를 제공하여 급식인력난 해소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노안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노인복귀시설협회 체육대회 성료

중선 탑 쌓기 장기자랑 하며 사회복귀시설 회원들 친목도모

11월 3일, 청신장애 달사자들의 신심이 건강회복 및 만족스런 사회복귀를 유원하는 제2회 충북사회복귀시설협회 체육대회 가 청주 음림리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를 주관한 충북사회복귀시설협회와 우리꽃장신건강센터에서는 충북지역 내 사회복귀시설 회원들 간 자연스러운 소통의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이를 통한 증심협력 및 사회복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북 지역의 사회복귀 시설 9개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직원, 군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 200여명이 참가하였고 월림과 백림으로 나눠 풍선 탑 쌓기, 장기자랑,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등 10개 종목에서 선의의 승부를 겨뤘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시설의 회원은 경 기를 통해 다른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친해질 수 있었고 스트레스를 날리며 삶의 활력을 얻은 것 같다. 며 밝은 미소를 보였다. 아울러 본 대회의 진행을 맡은 회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큰 행사에 진행을 할 수는 기회에 감사하고 뿌셨 덜지 못했지만 뿌듯하다 되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사회복귀시설협회 박용선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기관들이 참가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여 회합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꽃장신건강센터의 안금숙 원장은 폐회사에서 각 기관 회원 및 관계자들의 회합과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즐겁고 값진 한주를 보낼 수 있었다며 참가한 모든 이들이 항상 오늘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기쁨 가득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본들의 사회복귀 증진을 위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통합청주시 청원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워크숍

사회복지기관 시설 등 참여 상담기법 교육 및 토론 진행

11월 10일 클리퍼상은 강당에서 사회복지기관 시설등 12개 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 120여명 참여한 가운데 통합청주시 청원구 사례관리 네트워크 워크숍 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사례관리 네트워크 사업경과보고와 사례관리 실무자들에게 실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들을 이해시켜 업무능력 향상시키고,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석한 네트워크 대표기관 복부종합사회복지관 김숙(한동호)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례관리기관들 간의 협력을 공연과 전시부문으로 나눠어 진행되었다.

공연은 4개 부문에 10개시군 26개팀 어르신들이 참가해 합창(팝송, 민요,대중), 기악(나팔), 노래(트롯) 등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한편, 예술의전당 보리에도 오랜 삶의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묻어나는 문예(고개, 서예(고개, 문인화(7개) 수상자들과 아울러운 일상을 그려낸 서양화 및 서진 작품 들을 전시하였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공연부문은 4개 부문으로 민요(청주시가곡보신복지관 은세계팀), 기악(충주시노인복지관 즐거운인생팀), 노래(충북군노인복지관 심퍼오브유팀), 합창(옥천군노인복지관 항수합창단팀)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인생 100세 시대 도래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한 요즘, 인생의 황혼기를 환금기로 보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뿌듯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개발 평가 실무자 네트워크 교육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북협회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심부지의 여랑 강원 및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평가 실무자 네트워크 교육을 11월 9일 영동군장애인복지관 1층 강당에서 도내 12개 시 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개발 평가담당 팀 장 실무자 2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총 3강으로 진행되었으며 12은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서은선 관장의 장애인복지관의 위기와 대안 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2강부터는 백석대학교 조성우 교수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라는 주제로 이론교육과 실습을 함께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였다.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 이동편의 제공

전동스쿠터 지원 공모사업 선정

노인이동권리를 위한 전동스쿠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은 지난 26일 전동스쿠터(약 25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전국 262개 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하였다. 심사결과 총 70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도 선정의 기쁨을 누렸다.

전동스쿠터를 전달받은 손모77세, 에 이어진은 배우자 사망 후 30년 넘게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하리디스크 수술 이후 지속적인 불중소로 하반체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또 관절염이 심하여 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어르신의 불편을 원하시켜드리고자 고심하던 중 전동스쿠터 지원 사업 소식을 접하고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되고 이날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박미선 관장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원해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께서는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부터 다양한 혜택까지 누리시기를 바란다 며 소감을 밝혔다.

9988행복지키미 치매예방교육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에서 10월 26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본관 2교육실에서 9988행복지키미 치매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충북광역치매센터의 연계하여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치매예방법, 치매예방체조, 건강체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치매예방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에 대해 검토 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9988행복지키미 근무자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노폐자에게 공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민간복지의 활성화

최홍묵(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장)

1.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 시책의 총칭

가.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

---------- 중략 ----------

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달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사회복지 업무는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 창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과 구조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1995년 지방자치로의 전면시행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사 대 시작

1995년에는 전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구성하여 지방분사 실천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하였고에, 보건복지콜센터(희망전화 129)를 운영함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체계 재구성(가칭)를 강화제의 를 법표하고, 주민생활지원제한이 이뤄어졌고 2007년 주민생활서비스를 한국의의 도입 시키면였으며, 2008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정공하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2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의 강화와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시군구 중심 희망복지지원단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을 통해 복지패밀리 형상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사회복지협의체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확대 · 개편되었으며, 공공 복지전달체계 단위를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단위로 내려 읍 면 동 복지사회보 능조직의 희망복지지원단을 감행함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공동사적, 비공식적 민간사회복지제가 급속히 와해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 생활의 생활의 중심이 중심구조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심을 이뤄다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사회복지법이제도의 도입, 1980년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입법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게 되었음

사회복지시설의 공공 한국전선생을 경험한 이후인 1950년대에 들어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체적 감독에 관련된 최초의 규정은 1952년 10월 4일에 공포된 후생시설운영요령 임

이 후 종전에는 후생시설을 아동보호시설(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과 성인 특수보호시설(맹인원, 정신지체교육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노인보호시설양로원 등으로 변무하고, 민간이 후생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단법인을 원칙한 후 학원시설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음

1960년대에 들어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61)이 제정되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에 제정되고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한계, 사회복지법인제도, 사회복지시설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었음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83)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제공의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었으며, 이들 법률을 기초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기본 구조가 확립되었고, 이후 사회복지법제의 발전 단계화됨

우리교육진흥법의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이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육기를 총괄시키기 위해 영유아보육법(1991)을 제정하여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 대 함 또한 사회복지전설의운영기원 (1989)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 대 함 또한 사회복지전설의운영기원 (1989)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적극 추 진 확대하였으며, 1992년부터 사회복지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 등 14개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지역복지를 강화하였음

민간 사회복지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을 제정하여 기부금품모금위원회(1951)의 회원을 받지 않고 법도도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이 법률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기금관리기금 1996년 법인 적으로 보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1975년부터 정부에 모인 왕수 이웃돕기운동으로 기부된 성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운영 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금을의 지정할 수 있게 하였음

– 이후 사회복지사업 민간전래를 민간기구가 모금하여 자활의 도움 집행하도록 하여 기금활용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이 제정되어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범하였음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 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체) 법도도 시 군 구 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무상보육 확대, 등등사이스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체계 사업의 원리 도입으로 복지 인 모델 구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정부-민간 간의 협력모델에 변화가 발생함

2015년 10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총 1,301개소로 사회법인이 1,514개소, 지원법인이 287개소임

사회복지사업기 확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유형 또한 크게 증가하게 2010년 기준 총 시설 수는 136,185개소(생활시설 7,167개소, 이용시설 129,018개소)임

–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도 총 70,6908명(생활시설 10,668명, 이용시설 60,022명)에 달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성과 법적 지위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1960년대 후반 사회복지사에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복지사업에 대한 관리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한편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수에 따라 원조액수가 감소하게 되어 각기에 민한 복지의 필요성도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논의가 시작됨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 1983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기관 보호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처음 대상으로 하였고에, 사회복지법인제도도 탄생함

1961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제정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만 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을 확보해왔으나,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법인 한계가 제기됨 특히 국가의 규제는 1997년 전면개정하기 그 원칙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추가되었고, 이용시설이 사회복지 관 사업이 포함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지과을 사회복지사로 개정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하고 임무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함

1992년 개정으로 법도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과 재가복지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과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외에 기타 비영리기관들도 시 군 구 구 청 등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게 함

1997년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자격증시행 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 영을 하게 되어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부 개정함

지난 11월 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사흘째 장외집회 이 조달해를 하고 있다.

1999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등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 도 지 사 의 허가로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함

2003년 개정은 시 군 구 단위의 시 군 구 사회복지 협의 회를 통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007년 개정은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 감독 을 실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규정했으며, 2009년 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전산망을 마련함

2011년 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설 치 운 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 도 시 군 구 에 이양하여, 농촌의 지역 등의 지역복리과 시설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12년 개정은 당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세금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회인의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사업의 공익성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의 요구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법 및 시설의 대한 관리감구를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강화함

2016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최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음

그동안 사회복지통합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것이 민간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고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이 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층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출범, 생활보호법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나 의료보험법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구체화되기 많은 한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별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시야를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함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1980년대부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과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기능해져 법률영역으로 이동, 사회복지사업으로 인 구 규모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으로 한 협 의 조정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민간 사회복지사업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협력체계 개발 협력체계 구축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를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라. 각종 협의는 해당 시설유형의 이익 증진 활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 중심 사회복지시설, 기간, 단체 간의 협의 조 직 기능

– 복지과 지원을 가 본격화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 의 조 직 기능 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함

–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과 민간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시 군 구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 의 조 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협력체계 개발 협력체계 구축

공 공 부 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를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마. 각종 협의는 해당 시설유형의 이익 증진 활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 중심 사회복지시설, 기간, 단체 간의 협의 조 직 기능

– 복지과 지원을 가 본격화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 의 조 직 기능 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함

–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과 민간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시 군 구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 의 조 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협력체계 개발 협력체계 구축

공 공 부 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바. 각종 협의는 해당 시설유형의 이익 증진 활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 중심 사회복지시설, 기간, 단체 간의 협의 조 직 기능

– 복지과 지원을 가 본격화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 및 관련분야의 시설, 기관, 조직들의 협 의 조 직 기능 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함

–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과 민간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시 군 구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 의 조 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수가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내에서의 경쟁이 직영제지역에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민간 간 연계와 협조가 미흡함

– 지역사회의 전재한는 서비스와 자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전달자에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 수립의 어려움 이유로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발생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민간 협력체계 개발 협력체계 구축

공 공 부 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과 민간복지의 활성화 방향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의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체계 수립 필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공공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이 모두 이관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은 보다 새롭게 제정하여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지난 46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인원늘기에 변화, 빌린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공랍하여져 발랍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복지 상황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정함 필요가 있음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가 크게 발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층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체계 수립이 필요함 특히 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의 인 관 련체계로 주장하고 민간지원의 활동 및 연계를 규율함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되어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제호 변경, 사회복지서비스 용어 사용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사용한 사회복지사업 이 란 용어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해야 할 것임

– 당시 사회복지사업 이란 용어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 의 합성어로 하여졌 것임

1910년대 1세대제대로 이해 해 미국에서 임명어진 사회사업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고, 한편 1945년 2차세계대전이 종료 후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용어가 우리나라에 전파 및 기본에 이해 함성한 사회사업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일본을 통해 도입되어 사용하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사회복지사업 용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이란 용어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한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과정에 도 움 되지 못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로도 상용하게 됨

– 그러므로 이 사회복지사업 이란 법제도 용어를 폐지하고 사용할 경우 국가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민간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모두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입법되어 혼동을 초래하게 됨

사회복지사업 이란 용어 대신 사회복지서비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 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각종의료,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를 의미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의 정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 관한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 요 의미의 사회복지 지원, 돌봄 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칭을 가칭)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함 필요

다. 민간복지 활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2014년 제정 사회보장급여법 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공공전달체계 관련 부분이 모두 이관되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입법을 이제 주로 민간복지활동에 관한 지원에는 법률로 개정할 필요

개정 법률에서 민간복지활동활동과 지원에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자활 성 전 문 성 유 연 성 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책임성을 전제로 함

민간복지활동활동에 관한 각종 지원규정을 강화하여 함

– 민간사업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 참여에 대한 지원

– 민간의 자발적 지방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

민 간 협 력 체 계 구축에 관한 규정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시 군 구 사 회 복지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기관의 관계 수립 등 민 관 협 력 체 계 구축

– 민 관 협 력 체 계 의 협력의 동반자 모형 추구

공 공 부 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4. 민간복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개정방향

2014년 제정 사회보장급여법 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공공전달체계 관련 부분이 모두 이관되었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입법을 이제 주로 민간복지활동활동에 관한 지원에는 법률로 개정함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자활 성 전 문 성 유 연 성 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책임성을 전제로 함

민간복지활동활동에 관한 각종 지원규정을 강화하여 함

– 민간사업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 참여에 대한 지원

– 민간의 자발적 지방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

민 간 협 력 체 계 구축에 관한 규정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시 군 구 사 회 복지협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기관의 관계 수립 등 민 관 협 력 체 계 구축

– 민 관 협 력 체 계 의 협력의 동반자 모형 추구

공 공 부 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 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 지자체 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의 동반자관계 설정해야 함

공 공 과 민간부문 간의 가버넌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분권화, 서비스의 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최저수준으로 상향 조정, 서비스의 직용권에를 서비스제공으로부터 일반 주민에게로 확대 등과 같은 방향성에 기초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제도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복지 대표기구의 역할 강화

–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한 동력제, 각종 지원체의 시행, 민간부문간의 협 의 조 정, 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운영이 필요함

– 관련 법률의 제 개 정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등 민간사회복지가 법률에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고유의 자율성 확장 및 질의 발전의 지원을 위한 민간복지 대표기구 필요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대표하는 각종협회가 설립되고 있음

*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 사회복지사업법,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11.09)

(사회복지시설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 계	노 인	아 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결핵 · 한센	지역사회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계	시설수	136,185	53,744	4,364	2,983	124	361	150	6	247	437	43,770
	종사자	702,690	345,936	14,304	24,229	473	3,674	1,614	98	2,117	3,351	301,719
생활시설	정원	215,102	144,966	16,413	30,640	1,247	13,021	10,774	436	–	–	–
	시설수	7,167	5,020	315	1,343	121	233	124	6	–	–	–
	정원	250,597	168,531	23,942	35,545	2,532	16,307	12,690	1,000	–	–	–
	종사자	215,102	144,966	16,413	30,640	1,247	13,021	10,774	436	–	–	–
이용시설	시설수	129,018	48,724	4,049	1,640	3	128	26	–	–	–	–
	종사자	60,022	26,133	3,762	11,636	–	1,104	198	–	2,117	3,351	301,719

주 1) : 노인요양시설 포함, 경로당 63,251개소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주요업무』 를 참고 재작성

행복한 복지종사자가 행복한 사회 만든다

조 성 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2011년 3월, 필자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회복지종사들의 동의 모아고 정부와 여 야 국회의원 등 사회적 등의를 얻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법) 이 제정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관련 조례 제정이 진행되어 올해 6월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 전체와 기초지자체 227개 중 55%인 12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를 통해 처우개선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처우법 제정 5년 만의 성과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기야 2013년 4월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과중 등을 호소하며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는 등의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실태조사 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낮은 급여는 물론 과 로, 이용자로부터의 폭행, 업무 중 빈발하는 사고 등 최근까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인권, 인권 문제는 일을 만류한 등장하는 언론의 기사들 에서도.

이 때문에 1998 국회에서만 5번의 처우법 개정안이 김상조, 박인숙, 신의진, 박상조, 백재현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되었지는 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제 조화를 통하여, 그 외의 생 활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외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등 이다. 이 중 처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사항 처우법은 그 입법되었 다. 2개 조항 이다.

이 달의 법률상식

압류금지채권

원명만 변호사

Q. 저는 최근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환명이 대여금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에 압류를 신청하였드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월급까지 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로 가족을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는 절박인데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월급 또는 퇴직연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연금 관련법 등에 의한 권리들 중 일부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1. 법률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재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병사의 급료 4.급료 연금 상 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월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경우 월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만약 월급 전부에 압류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인권과조사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16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1) 일시 : 12.13(화) 14:00
2)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
3) 인원 : 150명
4) 내용 : 식전공연, 유공자표창, 우수관리센터 현판 증정 등

제7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신규양성교육
1) 일시 : 11.24(목) 13:00
2) 장소 :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충북하나센터 토론회
1) 일시 : 11.25(금) 14:00
2) 장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3) 주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지원방안

푸드뱅크&BGF와 함께하는 사랑의 선물꾸러미 만들기 행사
1) 일시 : 11.26(토) 09:00
2) 장소 : 청주 풍광초등학교

돌봄종사자 건강검 지원사업 안내 및 참가자 모집
1) 사업명 : 돌봄종사자 건강지원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검 지원사업
2) 대상 : 도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돌봄종사자)
3) 사업목적 :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업무환경을 위한 여랑강화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며,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
4) 내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소모임 개발 및 지원 등
5) 진행일정 : 2016.10~사업 종료 시 까지
6) 신청기간 : 2016.09~모집 완료 시 까지
6) 비용 : 무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16년 SPSS 통계교육
1) 일시 : 12.1(목)/8(목) 14:00~18:00
2)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전산교육장
3) 인원 : 총 40명
4) 내용 : SPSS 통계교육, 사업평가, 주민욕구조사, 프로그램만족도, 빈도분석, 교차분석, 설문지작성 등
5) 신청 : 11.30(수) 13:00까지 선착순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법인사용자 대상 기능개선사항 교육
1) 일시 : 11.28(월), 11.29(화) 14:00~17:00
2) 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3) 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법인사용자
4)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
5) 내용
- 제무회계규칙에 따른 산하시설의 시군구 보고절차 적용사항
- 법인과 산하시설 간 연계 필학에 대한 사항
- 법인의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시 참가 관련 사항
- 법인의 산하시설에 대한 정보조회 항목에 관한 사항

공유복지플랫폼
공유파트너가를 전국 모집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2) 참여대상 : 전국 소재 사회복지시설
3) 참여내용
- 기관에서 홈페이지 자료실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 공유
- 기관계정으로 자료를 직접 등록 도는 등록 대행
4) 신청방법 : 구글 설문지 제출

지식나눔강사 강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교육> 참여인사
1) 신청기간 : 12.20까지
2) 대상기관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기관장 최대2회까지 무료신청가능)
3) 소요비용 : 무료
4) 신청방법 : 강사선택 신청서 작 성 신청서 첨부 및 덧글 등록 찾아 가는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 위탁 공모 안내
1) 신청기간 : 11.21(월)~12.5(월)
2) 위탁기간 : 2017.1.1~2018.12.31
3) 사업예산 : 735백만원
4) 주요기능
- 법률장애인과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구·복지프로그램 개발, 권리구제
- 국가 발달장애인정책 지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5) 제출서류 : 위탁기관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실적 자료, 신청 자격 입증서류, ppt자료
6) 제출방법 : 우편접수

인구보건협회
저출산 극복 표어공모전
1) 응모기간 : 11.9(수)~12.30(목)
2)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접수
3) 응모내용 : 1인당 1작품
- 저출산의 심각성과 출산장려 등의 의미를 함축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표어
- 일 가 정 양립, 남성의 육아참여, 양성평등, 결 혼 출산 의 행복, 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표어
4) 결과발표 : 12월 2째주
5) 시상규모 : 최우수1명(200만원), 우수2명(70만원), 장려5명(150만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사별자의 아픔, 회복 그리고 다시서기 수강교모전
1) 공모기간 : 11.1(화)~11.30(수)
2) 공모대상 : 자살유가족, 가까운 친구, 이웃, 동료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모내용 : 자살 사별자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사별한 사람과의 추억, 생명의 소중함 등이 담긴 체험담을 자유롭게 표현

지역사회봉사단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도왔어요"

보은 맷돌꿈원서 열려
L-ing 봉사단 보조활동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소속 L-ing봉사단(단장 김도연)이 보은군 맹꽁공원에서 개최한 충북도민을 위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행사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오전10 단원은 이른 아침부터 바쁜 일정이었지만 행사가 전반적으로 원활히 진행되어 다행이라 라고 전했다.

보은군 맷돌공원에서 열린 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즐맷돌리기를 하고 있다.

어디서든 Talk! Talk! 터진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Daily English

전화예절 ②

전화는 현대인의 일상생활 및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통화시 자주 사용하는 전화 용어와 표현들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경경포 (전 충청대학교 교수)

1. The manager isn't here right now. 지배인은 지금 안 계십니다.
2. The boss just stepped out. 사장님은 방금 나가셨습니다.
3. They are out to lunch.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4. He is not in our company. 지금 회사에 안 계십니다.
5. She no longer works here. 그녀는 퇴사했습니다.
6. The president has an interview with him. 사장님은 그를 접견하고 있습니다.
7. I'm afraid he is too busy to talk now. 그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Can you call me back in about ten minutes? 10분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9. is Mr. park in 박 선생님 계십니요?
10. Please answer the phone. 전화 좀 받아주세요.
11. May I ask what this is regarding? 용건이 무엇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12. I'll cover the phones? 전화는 제가 받을까요?
13. It's me 전데요.
14. Who's this? 누구시죠?
15. What section is she in? 그녀는 어떤 부서에서 일합니까?
16. What section are you calling? 어느 부서로 전화하셨습니까?
17. Did anyone call? 누가 전화왔었나요?
18. Call me at 010-1234-5678. 010-1234-5678로 전화 주십시오.
19. The line is busy. 통화 중입니다.
20. There is no dial tone. 신호음(발신음)이 없습니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인생이모작"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접속 → 사이버강연 → Daily English 클릭)

복 / 지 / 만 / 평

청구서

이창신 www.bokmani.com

자원봉사자 모집

청주시

노리마을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세계
관리센터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 1. 01 – 12. 31
전화번호 : 043-237-8774

2016 장애인식개선교육 연구모임 자원봉사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 3. 01 – 11. 30
전화번호 : 070-4366-3607

이용인 프로그램 보조, 일상생활지원
관리센터 : 우리나라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 1. 01-12. 31
전화번호 : 043-272-5262

종물교육
관리센터 : 성심농아재활원
활동기간 : 9. 05-12. 31
요청인원 : 1명
전화번호 : 043-843-1337

2016 온라인홍보단 1기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활동기간 : 2. 08 – 12. 31
전화번호 : 043-256-4493

제천시

도서실 도서 정리
관리센터 : 명지리틀재단 명지병원
활동기간 : 1. 11 – 12. 31
전화번호 : 043-640-8472

충주시

재가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리센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요청인원 : 4명
활동기간 : 7. 14 – 12. 31
전화번호 : 043-856-1100

종물교육 자원봉사
관리센터 : 성심농아재활원
요청인원 : 1명
활동기간 : 9.5-12.31
전화번호 : 043-843-1337

영동군

재능나눔 자원봉사
관리센터 :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청인원 : 4명
활동기간 : 7.14-12.31
전화번호 : 043-744-9633

*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